

# 광주 '역세권 아파트' 어디가 좋을까

## 사랑방부동산 '맵플러스 서비스'

도시철도 2호선 정보 단독 제공  
"지도 한 장으로 매물·노선 검색"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이 5일 예정된 가운데, 1·2호선을 아우르는 광주 역세권 아파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랑방 부동산 맵플러스(Map+) 서비스가 지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 부동산 전문포털 사랑방부동산은 맵플러스 서비스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정 노선도와 지하철역 위치를 추가해 제공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지하철역 위치정보를 볼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은 사랑방 부동산이 유일하다.

맵플러스는 2호선 예정 노선도와 지하철역 위치를 지도 위에 담았다. 공사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개봉 시기까지 함께 보여준다. 아



파트·원룸 등 관심 매물 정보와 주변 지하철역 위치까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다.

사이트에 접속해 오른쪽 '지하철' 버튼만 누르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사하고 싶은 아파트 주변의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이며, 또 언제 개통하는지를 지도에서 손쉽게 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광주시 자료를 토대로 구축해 신뢰성을 높였다. 공사 과정에서 각 지하철역 위치, 명칭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곧바로 반영해 정보를 정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랑방 부동산 맵플러스는 위성지도 및 지적도 드론영상 서비스 등이 추가됐다.

사랑방 부동산 관계자는 "맵플러스는 매물, 단지정보, 시세변동, 지하철, 학교 등 광주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빅데이터가 담긴 서비스"라며 "향후 상업용 매물 검색, 지역 부동산 개발정보 등 더욱 다채로운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광주은행 시청지점에서 'NH-Amundi 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 펀드'에 가입했다.

## 이용섭 시장, 광주은행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광주은행 시청지점에서 'NH-Amundi 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 펀드'에 가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입해 화제가 된 'NH-Amundi 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 펀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서비스 기업에 집중투자하고, 운용보수의 50%를 기초과학 분야에 장기기금으로 적립하는 펀드이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에 50% 이상 투자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하며 경기와 무관한

우량기업에 4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국내 첨단 산업 지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자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 펀드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부터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가입에 동참했다"며 "지역 기업의 우산을 뚫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가을 기초화장품 인기 (수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2층 화장품 매장은 가을을 맞아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기초화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실화수' 매장은 피부에 균형을 잡아주고 윤기를 채워주는 '자음3종', '자음생3종', '진설2종' 등의 세트 상품을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 한방 원료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실화수'는 피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여성 고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 하나로마트 남악점서 추석 알뜰장터 개장

시중가 대비 20~30% 할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5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남악점 야외 행사장에서 '2019년 추석맞이 전남 우수 농·특산물 알뜰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남도 과실공동브랜드인 '상큼애' 사과와 무화과를 비롯해 배(영암·보성), 멜론(곡성), 포도(장성·담양), 대추방울토마토(화순), 표고버섯(장흥), 고구마(해남·영광) 등과 농협에서 육성 중인 아열대 작목인 바나나(강진) 등을 시중가 대비 30~20% 저렴한

가격 판매하고 있다.

특히, 고흥의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인)과 함평 나비골 한과 등 농업인이 생산, 유통하는 가공품 판매부스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존의 농산물 위주의 장터 운영에서 벗어나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이번 전남농협 추석맞이 농축산물 알뜰장터로 전남 농축산물과 농업인이 생산한 융복합 제품의 우수성이 더욱 알려져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철기기자 dols18300@srb.co.kr

## 광기술원, 세계 최고 수준 항공장애표시등 개발

단순 광학계 구조로 경제성 확보  
2020년 상용화... "신시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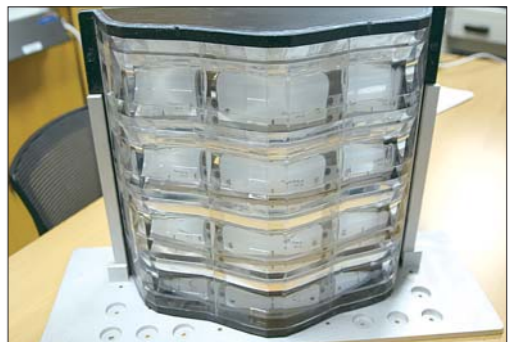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성능을 갖춘 송전탑용 고광도 LED 항공장애표시등 개발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광기술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항공장애표시등은 기존 제품의 성능적,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각도별 광도기준, 수직범 확산각도 등 한국전력의 성능 요구구격을 만족하고 광효율(소비전력 절감)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광원, 반사판과 렌즈구조의 복잡한 기존 제품과 달리 LED광원과 프레넬 렌즈만으로 구성된 단순 광학계 구조 설계로 경제성을 확보했다.

한국광기술원 IoT조명연구센터 이윤철 센터장은 "프레넬 렌즈의 광축에 설치된 광원부와 초점거리가 서로 다른 파셋을 설계하고 광원부를 광축으로부터 오프엑시스(Off-axis) 하는 방법을 적용해 항공장애등 광학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헬기 및 항공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안전(등명기·등부표), 수송기계(자동차·철도) 등 타 산업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광기술원은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성능을 갖춘 송전탑용 고광도 LED 항공장애표시등을 개발해 2020년 상용화에 나선다.

한국광기술원은 해당 기술에 대한 3건의 특허 확보 및 성능평가를 통해 기존 항공장애등 대비 우월한 광학적 성능을 입증,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당장 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19년 광주·전남·전북지역 미래유망 기술교류회'에 출품해 수요기업 현장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은 "항공장애표시등 분야의 공통적 애로기술 해결로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융합조명 기술을 통해 융복합분야 신시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칠산-천사대교-목포해상케이블카 연계 관광 루트 조성

익산청, 전남도·4개 시군과 회의  
서해안 관광벨트 활성화 등 논의

익산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은 지난날 30일 신안군에서 전남 서해안에 산재된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해상교량을 활용한 관광 해안길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시, 영광군 등 4개 시군과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말 준공 예정인 칠산대교, 올해 초 개통한 천사대교, 6월 개통되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더불어 전남

도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자산인 섬과 해양경관 등을 묶은 관광루트를 홍보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들은 지속 성장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전남 서해안에 산재된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각 기관에서는 전남 서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 광주 주택사업경기도 '급하강하나'

정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로  
9월 HBSI 전망치 77.7 불과  
전달 96.5보다 18.8P 하락

그동안 주택사업경기를 선도해 왔던 광주 주택사업경기도 급하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1.7로 전달보다 6.5포인트 하락했다.

2개월째 60선을 회복하고 있어 가을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동안 양호한 주택시장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서울마저 24개월만에 60선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90선을 제외하고는 서울, 대구, 광주, 세종마저 60~70선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간 주택사업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었던 지역도 정부의 지속되는 공급규제 강화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경기 기대감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월 광주 HBSI 전망치는 77.7로 전달(96.5)보다 18.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HBSI 실적치는 67.0으로 전달보다

6.2포인트 하락하며 60~70선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88.0), 세종(86.9)이 80선, 광주(74.0), 대구(67.6), 서울(61.1)이 60~70선에 그쳤다.

이달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망치도 전달 수준에 그치거나 하락하며 전망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 수주 전망치는 84.3, 재건축은 79.7을 기록했다.

이달 자체수급, 자금조달, 인력수급 전망치는 각각 95.1, 78.8, 95.3으로 모두 전달보다 상승했지만 100선을 하회하며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 광주지역 상가 권리금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기준 4천23만원 기록  
전국 평균보다 512만원 적어  
"내수침체 영향 하락세 지속"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등으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가 권리금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지역 상가 권리금은 얼마나 될까?

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천535만원으로, 전년(4천777만원)보다 5.3%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5천682만원에서 5천

472만원으로 3.7% 내려 권리금이 하락 중이다. 5대 광역시 가운데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4천1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4천54만원), 대전(4천48만원), 광주(4천23만원), 대구(3천570만원), 울산(2천351만원) 등 순이다.

상가 권리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소규모상가의 공실률은 5.5%로, 지난 2017년 2분기(4.1%)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시장이 그림 없는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상권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도 공실률이 커지는 데 기여했다.

한편으로는 임차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권리금을 하락시키는 역할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권리금은 애초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임차인의 권리가 예전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경기와 오프라인 매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권리금은 지속 하락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권리금을 다 받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생기고 있어 연말까지 권리금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권리금은 차츰 종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백석호기자 haita2000@srb.co.kr